



앞줄 좌로부터 김재영계장, 유영규과장님, 황경숙
뒷줄 좌로부터 서호윤, 문창수주임, 이기현, 김영숙, 이춘만주임



우리는 할 수 있다

-경북지부-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청 넘어 한송이 빨간 장미가 아침이슬을 머금은 채 우리의 출근길을 맞이한다.

“나는 자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의 목표를 외치며 새로운 자신감과 생동력으로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조그만 삶들이 모여서 하루가 영글어가는 테두리속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유영규과장님.

누구든 과장님의 말씀 한다미 한다미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진정한 젊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나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들의 노고를 항시 생각하며 하루의 일과에 대하여 허심탄회 토론하여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한다.

양친이 부산에 계시는 김 재명 사업 계장.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부산행열차에 몸을 싣고 3년만에 얻은 현영(딸)을 만나러 떠나는 날이면 입가에 웃음꽃이 핀다. 그런 자상한 마음속에 사업과를 총괄하면서 사업의 추진전개방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경북도내를 매일 같이 누비기에 별명이 특공대라는 문 창수 사업주임·사업추진 및 일반 기생충사업을 담당하면서 각시군 보건소 담당자와의 친밀한 유대 관계로 사업수행을 항시 원활하게 우리과를 이끌어가는 과수꾼·예지, 언저 예쁜 두 딸 때문에 항시 퇴근길에는 두 손에 과자 봉지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용돈 때문에 항시 불평하지만 다음에는 꼭 안타(아들)를 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지부의 만물박사 사업추진요원 서호윤씨. 비록 짧은 기간동안에 추진요원으로서 요즘엔 1주일에 한번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큰 키와 잘 생긴 얼굴로 사업추진에 덕을 보는 사람중의 한사람 혹시 시집, 장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해결사 역할까지도 하오니 연락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OK.

우리과의 살림꾼 이 기현씨.

결과통보 및 수불등의 사업추진의 내조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한때 가수 지망생으로 비록 낙향하고 말았지만 특히 악기 다루는 솜씨는 일품.

우리과의 태양, 달빛, 구름, 안개, 희망 항시 밝은 웃음으로 모든이의 선망의 대상

22, 25살 개구쟁이들

빵과 우유로 다진 몸매와 발레 솜씨로 가꾼 몸매,

오늘 하루도 결과 통보에 하루의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어느 누가 모시고 가게 될지 모르는 김영숙씨와 황 경숙씨에게 우리 모두 중매장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필자 뭐 적을게 있나?

가끔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추진 및 사업업무에 항시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하고 있으며, 물론 그런 불평 소리가 없었다면 발전 할 수 없을 테지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부족한면을 발견하여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며, 요즘 불링 때문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정말 인지……

이처럼 모든 이들의 장단점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의 하루를 매듭한다.

축축히 내리는 빗방울이 오랜만에 우리들의 마음속을 적시어 온다.

자-가자 오늘의 자신감과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필자=사업주임 이 춘만)

